

호남·제주권 ‘초광역 분산에너지 플랫폼’ 본격화

산업부 ‘메가시티 육성사업’ 선정 광주·전남·전북·제주 협력사업 착수 89억 투입 ‘전력계통 안정화’ 개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도 탄력 “에너지 기술혁신 거점 도약 기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초광역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추진 동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R&D)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분산에너지시스템 기반의 전력계통 안정화 기술개발 및 실증 공모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초광역 협력사업은 ‘분산에너지 기반으로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개발이 골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체결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의 에너지 분야 협력과제를 구체화한 실행사업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기술 기반 구축이 목표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산으로 태양광·풍력의 간헐성과 전압·주파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기존 전력망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출력 제한과 계통 불안정 문제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특히 전남과 제주 등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력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송전망 부족과 수요지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 출력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R&D 사업은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계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각 지역의 기술적 강점을 활용한 기능별 역할을 분담했다.

광주시는 단주기 ESS(에너지저장장치) 운영기술 개발을 통해 태양광 등 일시적 공급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실시간 계통 대응이 가능한 분산에너지 관리시스템(DERMS)을 설계·운영해 전체 플랫폼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수조 단위 응답이 가능한 초단주기 ESS 기술을 개발해 계통 안정성을 정밀 제어하고, 제주도는 열·수소·전기 등 이중 에너지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섹터 커플링’ 기반 기술을 개발해 지역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에 대응한다.

이달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번 공동 연구개발에는 2년간 총 89억원(국비 46억원, 지방비 20억원, 민간 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수행기관은 광주·전남·전북·제주 각 지역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학연 혁신기관과 기술 특화기업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남에서는 바이텍정보통신, 아이티맨, 티이에프, 전북에서는 비나텍, 어포스텍, 전북대, 광주에서는 인셀, 그리다에너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광주분원), 제주에서는 에코브레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플랫폼 개발이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지역 분산형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영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전력자립은 물론, 전국적 계통 불안정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면에 계속
오지현·정상이 기자



서구청 공무원 5·18견학 광주 서구청 공직자들이 17일 광주 서구 5·18자유공원 내 영창 견학과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지 않은 80년대 이후 출생한 공직자들이 5·18기념공간을 방문해 전시와 기록물을 관람하고 체험을 통해 5·18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공감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양배 기자

제22회 호남마라톤 20일 오전 8시 승촌보서 ‘출발’

하프·10km 부문… 1000여명 참가 당일 비 소식… 컨디션 관리 유의

봄꽃이 활짝 핀 영산강변 길을 따라 전국의 달리기들이 힘찬 출발에 나선다.

전남일보가 주최하는 제22회 호남마라톤대회가 오는 20일 오전 7시 40분 광주 남구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사)전일엔컬스가 주관하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한다.

참가 신청을 한 1000여 명의 달리기들이 남도의 봄 정취를 만끽하며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km와 하프코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

된다. 출발은 10km부터 10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이뤄진다.

10km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승촌보 영산강문화관을 출발해 영산강 자전거길을 따라 달린다 반환점인 나주대교를 돈 뒤 다시 영산강문화관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하프코스 참가자들은 오전 8시 10분 출발해 승촌보를 한 바퀴 돌고 나주대교, 빗가람대교, 영산대교를 거쳐 반환점인 영산교에 다다른다. 반환점을 돈 뒤 다시 나주대교로 되돌아와서 승촌보로 가지 않고 바로 끝인점인 영산강문화관으로 오면 된다.

대회 주최측은 참가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6명으로 이뤄진 의료지원팀 3개반을 구성

했고, 구급차 및 환자 이송차량 3대를 배치한다. 응급환자 발생시를 대비해 출발지인 영산강문화관에 강진의료원과 광주 센트럴병원 의료진이 상주한다.

또 하프코스 기준으로 구간별 5곳에 급수대를 마련해 뒀다. 10km 코스에는 3개가 설치돼 있다.

코스별로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곧바로 시상식을 갖는다. 하프코스과 10km 부문 남녀 1~3위는 상금과 상장, 트로피가 수여되며 4~5위는 상금이 주어진다. 하프코스 6~20위와 10km 부문 6~15위에게는 부상품을 준다.

한편 대회가 열리는 20일 오전 최저기온 14도와 비 소식이 예보된 만큼 참가자들은 우의와 여벌 옷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야 한다. 최동환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유) 탐환경건설



(주) 탐앤제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8번길 20
Tel 062)376-5599 Fax 062)376-0094